세계문화유산 등록 앞둔 경주남산

훼손 유물·유적 제모습으로

개발행정 상처 '곳곳'
안내판 정비 시급
문화재 순례길 필요

경주 남산(사적 제311호)과 황룡사지(사적 제6호)를 포함한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 〈본지 277호 1면 참조〉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연·문화·복합 유산으로 나눠 지정하는 세계유산은 현재 1백18개국에 6백30건이다. 이 가운데 480건이 문화유산이며 우리나라는 불국사·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등 5건이 등록돼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앞둔 경주역사유적지구는 남산 외에 분황사 석탑과 황룡사지가 있는 황룡사지구, 첨성대 등 월성지구 사적 4점, 미추왕릉 등 대릉원지구 사적 7점 등이 함께 묶여있다.

남산만으로도 세계문화유산 지정 가치는 충분하다. 남북 12km, 동서 4km, 해발 500m의 그리 크지 않은 산이지만 산 전체가 야외박물관이다. 40여개의 계곡과 180여개의 봉우리마다 석불(88구), 석탑(71기), 절터(127곳)가 즐비하며 확인된 유적만도 465개에 달한다. 미륵골, 탑골, 부처골, 절골 등 골짜기에 붙은 이름만으로도 이미 부처님 세상이다.

그러나 남산은 곳곳에 상처를 안고 있다. 남산을 동서로 갈라놓은 순환도로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고, 헬기장에 교도소까지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유물들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형태를 잃어버린 채 방치되고 있다. 석탑은 옥개석 따로 부재 따로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고 석불의 광배는 나무 밑에 처박혀 있다. 주인잃은 목은 주변 축대 밑에 떨어져 있고, 71기의 석탑 중 천룡사지 삼층석탑(보물 1188호) 등 10기 정도만 제대로 서 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남산은 관리 부재로 인해 훼손이 가속화했다. 등산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 신라문화진흥원이 제작·관매하는 남산지도에 나와 있는 답사길은 70여개. 그러나 등산객들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등산로 아닌 등산로를 합하면 줄잡아 150여개는 넘을 것이라고 남산연구소 김구석 연구실장은 추산했다. 이들 등산로는 토양유실은 물론 유물 훼손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문화재 순례길을 조성해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말한다.

일반인들에게 남산을 잘 알리기 위해선 안내판 정비도 시급하다. 글자가 떨어지고 없는가 하면 시와 민간단체에서 세운 이정표가 지시하는 방향이 달라 초행자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남산을 남산답게 가꾸기 위해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마련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이 필요하다. 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빈) 이은석 학예연구사는 "세계문화유산 등록도 뜻깊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라며 "전체적 계획아래 박제화된 박물관이 아니라 생명있는 성산으로 가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98년부터 '남산일원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1차로 2002년까지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보존·정비사업은 98~99년에 걸쳐 현장 실사작업을 마쳤고 올 11월말 쯤 '남산 보존 정비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시는 또 11월말 세계문화유산 정식 등록에 맞춰 〈남산 문화재 종합도록〉을 발간하고, 국사골 제1절터 삼층석탑 복원을 시작으로 13곳의 폐탑지를 발굴·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앞둔 남산의 유물은 아직도 제자리와 형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젠 중장기적 계획아래 보존을 생각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 성불할 수 있나? 소승불교 "없다" 대승불교 "있다"

"한국불교 여성관 잘못"
이현욱 박사, 불교학 워크숍서 주장

"한국불교는 소승보다 대승의 계율을 수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교의 여성관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이현욱(동국대 강사) 박사는 불교학연구회 여름 워크숍에서 부처님 재세시부터 계속된 '여성 성불' 논쟁을 통사적으로 조명한 '여성의 여성관'을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을 상하의 관계로 보는 한국불교의 '여성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남성중심적 소승 계율인 〈사분율〉과 '팔경계법'에서 비롯됐는데, 이러한 상황은 후기 대승불교의 '여성즉신성불론(女性卽身成佛論)'을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다.

〈사분율〉에 나타난 여성 출가자는 법랍에 관계없이 남성 출가자를 받들며, 그들의 감시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성불할 수 없는 존재'(여성성불불가론·女性成佛不可論)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부처님은 아난과의 대화에서 여성의 성불을 인정했다"며 "경전의 여성 차별적 가르침들은 후대에 첨가되었거나,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팔경법의 상당 부분이 비구니 교단의 설립 후에 나온 용어나 조항이 들어 있어, 경전 편찬에 참여한 남성 출가자의 '반여성성'이 배어들게 되었다는 말이다.

〈사분율〉, 〈불설옥야경〉, 〈앙구타라 니카야〉 등에서 강조된 '성불불가론'은 부파불교 시대까지 내려오다가, 초기 대승불교의 등장과 함께 '여성변성남성성불론'(女性變成男性成佛論)으로 변화했다. 이 박사는 "〈법화경〉, 〈무량수경〉, 〈대아미타경〉 등에서 찾을 수 있는 '변성성불론'은 초기 대승 교단이 기존 부파 교단의 여성관에 제동을 걸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중용적 이론으로써 제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변성성불론'은 다시 후기 대승불교에 이르러 〈유마경〉, 〈승망경〉 등에서 '여성즉신성불론'(女性卽身成佛論)으로 탈바꿈하는데, 대승불교가 인도사회에 정착하면서 직접적으로 여성성불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 박사는 "즉신성불론은 부처님의 여성 인식을 가장 잘 계승한 완벽한 불교 여성론"이라며 "여성 성불에 대한 관점이 성불불가→변성성불→즉신성불로 변화는 과정은, 남성 중심의 왜곡된 교설을 바로 잡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 박사는 "삼국·고려·조선시대의 여성 불자들의 삶을 조명해, 우리 나라에서의 '불교 여성관'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돈황 화엄경변상도 한국 화엄탱화 시원"

해주스님 '막고굴…' 논문

돈황 막고굴 가운데 29개의 굴에 그려진 '화엄경변상도'와 한국의 화엄탱화의 관계가 중국의 돈황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해주(동국대 교수) 스님은 29일부터 6일간 개최되는 돈황연구원(원장 번금시)의 국제 학술심포지움에서 '막고굴의 화엄경변상도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다.

해주 스님에 따르면 막고굴의 화엄변상도는 〈80화엄〉을 소재로 한 7처9회도로서, 조선 후기 화엄탱화의 시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해주 스님은 "한국의 화엄탱화는 조선 후기에 독자적 구도를 보이고 있으나, 막고굴 변상도와의 유사성을 떨치진 못했다"며 "조선 후기 대표작으로 꼽히는 송광사·선암사·쌍계사·통도사의 화엄탱화에서 〈80화엄〉을 소재로 한 '7처9회도'가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송 시대에 그려진 돈황 막고굴의 화엄경변상도는 선재구법도 등 7처9회도 중심의 〈80화엄〉을 다루고 있다. 이 변상도는 선재동자가 문수보살로부터 보현보살에 이르기까지 53선지식을 만나 보살도를 배워 해탈문을 성취하고 법계에 들어간다는 여정을 옮긴 것이다.

돈황 막고굴 발견 100주년을 기념한 이번 심포지움에는 로틀위블스(영국)·마릴린리(미국) 박사 등 돈황 관련 권위자를 비롯해 프랑스·독일·일본·스웨덴·캐나다·말레시아·홍콩 등 10여 개 국에서 180여 명의 돈황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해주 스님 외에도 배진달(용인대) 교수가 '돈황석굴 편년연구-광배 형식을 중심으로', 이수웅(건국대) 교수가 '한국의 돈황학 연구현황' 등을 발표한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회당 학보' 5집 발간

회당학회(학회장 혜정)는 '조선시대 다라니경·진언집의 간행과 그 역사적 의의'(남희숙) 등 제1회 진각논문 대상 당선논문을 게재한 〈회당학보〉 제5집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불교의 선정과 요가의 삼매 대한 비교연구'(임승택), '인도 불탑에 담긴 상징성에 관한 연구'(권기현) 등 당선논문 6편과, '고려·조선시대의 범자문화 연구'(허일범) 등 연구논문 2편이 수록됐다. (02)913-0753

초의재단 차문화 연수

초의학술재단(이사장 용운)은 29일부터 8월1일까지 제12회 한국차문화 연수를 실시한다. 옛 가락국의 수도인 경남 김해 구지봉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가락국 시대의 '행다법' '헌다제' 등의 실습과 '김해 가락국의 역사'를 주제로 한 허명철씨의 특별강좌 등이 마련된다. (02)732-2317~8

한국불교연구원 연수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제27회 연구원 연수를 오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실시한다. 참가대상은 서울·대전·부산·대구 지역의 구도회원, 원효학당 학생, 전국교사불자회원 가족 및 희망자이다. 참가회비는 6만원이고, 7월 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02)3411-6167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 관련 e메거진을 '클릭'해 읽으면 세계의 불교계 동향을 알 수 있다. e메거진이란 불교단체·협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의 일종. 불교 관련 웹사이트 중 0.1%(약 3000여개)에 이르는 곳에서 주간·월간·계간 등 정기적인 e메거진을 제공하고, 해당 단체와 지역의 법회·신간·법어·뉴스 등을 게재하고 있다.

클릭! 뉴스레터…불교 보여요

△부다야나(Buddhayana · www.buddhayana.nl)는 네덜란드 불교계에서 발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소식지는 '국내·외 뉴스' '법어' '사사나(sasana·가르침)' 등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4월호 주요 소식 중에는 유럽의 불교학계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윈프리트 크루켄버그 박사(독일)가 타계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크루켄버그 박사는 〈자연과학과 부처의 가르침〉(1989년 刊) 등 과학·종교계의 교류 확대에 주력해온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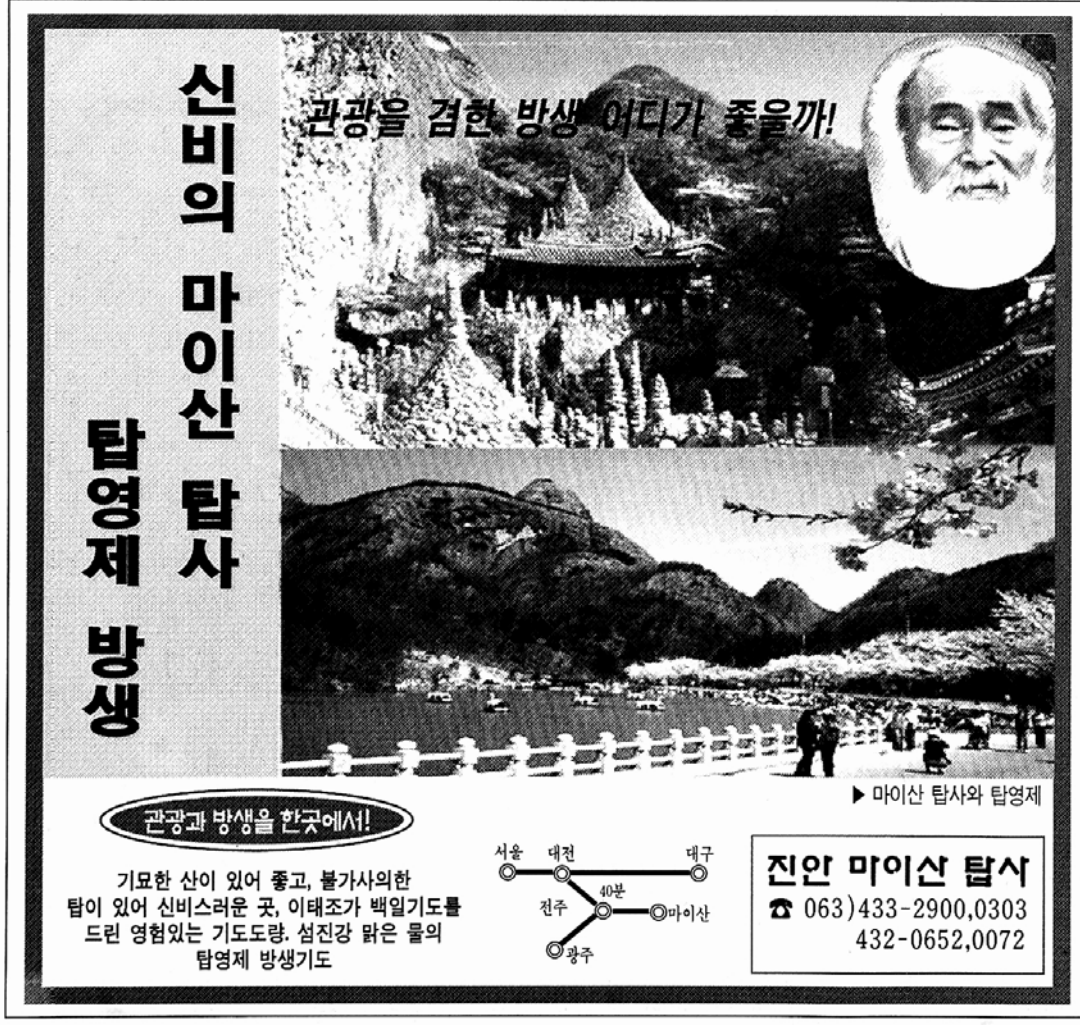
△중도(The Middle Way · www.buddsoc.org.uk/mw.htm)는 영국 불교계를 요목조목 알려주는 소식지. 최근호(5월)에는 '근본 명상' '계율·수계의 의미' '정(定)의 지혜' 등의 교리 강좌와 다양한 영국 교단의 소식을 담았다. 이 소식지에 따르면 영국 불교계는 현재 '위삭의 날'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위삭(vesakha)이란 팔리어로 4~5월,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출가·성도·열반일이 있는 이 기간동안 위삭축제를 열고 부처님의 공덕을 기린다.

△산 기록(Mountain Record · www.zen-mtn.org/mr/journal.shtml)과 알부쿨리쿼(Albuquerque · www.viva.com/azc/articles.html)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계 불자들의 법회·신간·모임 등의 소식을 담고 있다. 최근 발간된 5월호에는 뉴욕에서 열린 첫 봉축법회에 대한 소식과 미국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파묵카 세라 스님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불교신자의 도리' 등을 주제로 한 법문도 읽을 수 있다. 이외에도 프렘트리젠도, 삼발라센터 등 미국의 대표적인 선원 10곳의 소개도 싣고 있다.

△지혜(www.wisdom.org/newsletters.html)는 프랑스 불자들이 쓴 선시(禪詩)와 신행 수기 등을 읽어 볼 수 있는 뉴스레터로, 이 소식지를 발간하는 '지혜선 센터'의 공지사항과 경전 해설, 불자 펜팔 소개, 프랑스 내 사찰 소개 등 알찬 내용이 가득하다. 여기에 매월 '알기쉬운 불교'라는 메뉴를 개설, 프랑스 초심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등 불교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레터의 열람은 해당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메일링리스트는 사이트 정보를 열람한 후, 방문록이나 해당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특정 양식에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기록하면 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일주일이면 나도 사주를 볼 수 있다.
왕초보도 볼 수 있다!
사주 공부 이젠 자신 있다!
기초를 튼튼이 잡아주면 절반은 성공!
초보자를 위한 역학 지침서
미래가 보인다.
자식의 유무·어떠한 직종이 나의 적성이며, 어느 길로 가야 적합하며 언제 운이 열리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주명리학이다.

김윤중 저
신국판 값 15,000원

라즈니쉬의 禪으로 보는 눈
사람은 깨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명백한 것을 놓칠 것이다.
달마(dhama)는 명백한 것이다.
신(神)도 명백한 것이다.
그것은 복잡한 것도, 복합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매우 가까이 있다.
그대의 가슴에서 고동치는 것이 달마이다.
그대의 피속에서 전기가 '찡!'하고
통하는 것이 달마다.
그대를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재료가 달마이다.
그러난 아직도 그대는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신구판/라즈니쉬 지음
길연옴김/값 9,000원

여름학교 어린이 불교 교재
어린이들이 고운 마음에 깊고 넓으신 부처님의 가없는 마음을 심어 주는 일은, 그들의 고운 꿈과 슬기로운 지혜를 한껏 일깨워 주고, 마음을 바르게 키우는 일에 꼭 필요하며, 또한 불교의 앞날을 위해서도 더욱 필요합니다.
불교 교재
1.우리들의 부처님 2.둥글고 밝은 길
3. 마음의 등불 4. 거룩하신 부처님 5. 합장하는 생활

신국판/각권 25,00원

화제의 신간
걸에 가니 아름다운 세상이 보인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생애 점에서 지킬 예의 등을 알기 쉽게 풍이 한 입문서
한량없는 부처님의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는 이 우주를 모두 감싸고도 부족함이 없으며 말고 글로써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다.

신구판/불교문화진흥회 엮음
값 8,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조 대전 신국판/이선일,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섭심부 신국판/양장본/申뱌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